

월드뷰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매거진

# WORLD VIEW

경제정의, 종교개혁에서 찾다

SPECIAL COLUMN 한국경제의 위기와 중소기업 | 경제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자 | 청년 실업과 열정페이

2016

MAY

05

COVER STORY

한국리더십학교

이장로 교장





#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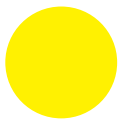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http://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교회 세습, 하지 않시다



## 세습의 고리를 끊고 개혁과 부흥으로!

이 책을 통해 목회(교회) 세습 밑에 감춰진 부패의 뿌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즉, 세습은 목회자에 대한 맹종,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도덕 불감증, 기복신앙,  
외형 성장 추구 등의 집합체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 모든 탐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인성 목사(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책을 내면서'에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기획 | 배덕만 책임 집필

교회세습  
반대운동  
연대  
보고서





# 종교개혁과 경제정의

클린턴 후보는 “역시 경제야!” (Stupid, it's economy)라는 입장에 서서 득표운동 함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에는 역시 경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어야 표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세상에서는 정치, 과학기술, 학문, 교육, 연예, 스포츠, 심지어 종교까지 경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역사상 경제가 이렇게 중요해진 때는 없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돈의 가치는 공유불가능(共有不可能, zero-sum)한 하급가치다. 돈은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의 패자는 항상 약자다. 약자이기 때문에 경쟁에 지고, 경쟁에 지기 때문에 약자가 된다. 그런데 경쟁에는 항상 부정의 유혹이 따른다. 정직하기로 유명했던 독일에도 포크스바겐 사태가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벌어졌다.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면 약자의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진다. 경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경제윤리며 경제 정의다. 요즘 제기되는 정의 논의는 보응의 정의 (reributive justice)가 아니라 전적으로 분배의 정의 (distributive justice)란 사실도 이런 요구를 반영한다.

최초로 정의를 이론적으로 다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正義)를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했다. 그런데 그는 귀족과 노예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와는 달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재하는 안전사회에서는 항상 빈부,

남녀, 귀천, 유·무식 등의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정의를 위한 기독교적 노력은 이 차이를 가능한 한 줄이고 제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고아, 과부, 객(이방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자, 소외된 자 등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동안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를 확대해 놓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이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국의 유서 깊은 구호단체 옥수팜 (Oxfam) 대표는 지금 전 세계의 부의 절반을 62명이 누리고 있고 세계 인구의 1%가 전체 부의 99%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돈보다 돈을 통해서 버는 돈의 액수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무능하고 게을러도 돈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런데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Max Weber)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 특히 칼뱅주의에서 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견이 없지 않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은 그 주장을 다시 한 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루터의 소명론(召命論)과 칼뱅의 예정론에 근거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 직업에 성공하는 것이 곧 자신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노동해서 많이 생산했으나 철저히 절제함으로 성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칼뱅은 이자 받는 것을 허용했으므로 상업이 번창했고 돈이 돈을 버는 오늘의 상황에 단초를 마련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직업에서의 성공이 곧 예정의 증거로 보았다는 베버의 주장에는 이의가 많다. 그러나 소명론, 근검절약, 이자허용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고, 자본주의를 대동시켰다 할 수는 없어도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의 개신교인들은 자본주의의 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칼뱅이 이자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에서는 돈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sterile)고 보았고 중세교회는 꾸어 준 돈에 대해서 이자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런데 칼뱅은 상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그 시대에 돈을 빌려 사업을 하여 빌린 돈보다 더 큰 돈을 만드는 경우가 엄연히 있는데도 돈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구약의 명령은 신약시대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무조건 이자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인간의 전적부패에 누구보다 민감했던 칼뱅은 이자허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자를 허용하되 일곱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했다. 가난한 자에게 꾸어 주었을 때,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공익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율을 초과할 수도 없고, 대금이 직업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들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돈이 돈을 버는 오늘의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어있다. 사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조항을 둔 중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오늘의 세계는 경제에 관한 개혁자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관심, 돈이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고 대금 그 자체가 직업이 되지 못하게 한 것, 부지런히 일하

고 사치를 금한 것 등 정의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다 무시하고 다만 이자를 허용한 것만 잘 수행한다.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충실했더라면 오늘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위험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대 개신교는 바로 현대 사회가 무시해버린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회복해야 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익과 무관하게 열심히 일하며 무엇보다 더 절제해야 한다. 베버는 종교개혁자들이 “세계내적 금욕”(innerweltliche Askese)을 실천했다고 주장한다. 모든 절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며(딤후 6:10), 돈에 대한 탐심은 우상숭배(골 3:5)라고 경고한다.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적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모든 윤리는 정의로 환원되며, 약자를 착취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 정의의 핵심이다. 이런 정의가 무시되면 자본주의는 약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대한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독일 신학자 그룬트만(W. Grundmann)은 헬레니즘의 절제는 행위자 자신이 고상한 품격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성경의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했다. 모든 이웃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이웃에게 고통을 더 하는 악은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공정하게 행동하고 사회 구조도 정의롭게 고쳐야 할 것이다.



#### 글 |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월드뷰를 만드는 사람들

대표주관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발행인	김승욱	중앙대 교수,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미국 조지아대 경제사 박사
편집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영화평론가, SFC문화연구소장, 서강대 박사
	김정호	이화여대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 학회장,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박사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크리스천 최고경영자과정(C-LAMP) 주임교수, 파리제10대 경제학 박사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 고려의대 외래교수,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의학박사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前)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시라큐스대 철학박사
	신국원	총신대 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 암스테르담자유대 철학박사
	우종학	서울대 교수, 예일대 천체물리학 박사
	이승구	합신대 교수, 국제신학대학원대 부총장 역임, 세인트앤드류대 신학박사
	조성돈	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라이프호프 운영위원장, 기윤실 본부장, 마르부르크대 신학박사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前)MBC 워싱턴 특파원 및 뉴스 앵커, iMBC 사장, CGN TV 대표
실무진	나동훈	독서진흥간행물 <Thanks Book> 발간인,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 졸업, 미술학 박사
	신효영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 총신대 석사



손봉호 교수



김승욱 교수



강진구 교수



김정호 교수



김태황 교수



박상은 원장



송인규 교수



신국원 교수



우종학 교수



이승구 교수



조성돈 교수



조영길 변호사



조정민 목사



나동훈



신효영 편집인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및 임원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 ((前)총신대 총장), 양인평 (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 (중앙대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송인규 (한국 교회탐구센터 소장), 양승훈 (VIEW 원장),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 이강인 (엘타워 대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전광식 (고신대 총장),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
	감사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부위원장	박동열 (서울대 교수)
	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김미영 (한국 소토 대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김원수 ((주)이리오스 대표), 김지원 (백석대 교수), 김혜정 (CUP 대표), 박문식 (한남대 교수), 박영주 (은혜샘물학교 교장),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손병덕 (총신대 교수), 신국원 (총신대 교수), 유경상 (CTC 대표),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이우성 (STEPI 박사), 장수영 (포스텍 교수), 정희영 (총신대 교수), 조성표 (경북대 교수), 최태연 (백석대 교수), 최용준 (한동대 교수)

# Contents

WORLDVIEW · MAY · 2016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이장으로 | 이장로

## SPECIAL

16 기획칼럼 한국 경제의 위기와 중소기업 | 한정화

20 기획칼럼 경제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자 | 김태환

24 기획칼럼 청년실업과 열정페이 그리고 교회는? | 이춘성

28 편집인추천 함께, 더 깊고도 넓게

## COLUMN

02 대표주관 종교개혁과 경제정의 | 손봉호

32 메디컬칼럼 Cure & Care 중년의 뇌는 성장을 멈추었는가? | 최현일

35 묻고 답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구원 | 김현수

## CONTENTS

29 그뻘 그랬지 오래전 그 날

40 루터의 도시를 가다#3 비텐베르크 | 추태화

42 BE+Live+tr 여성, 그대의 사명은 | 한신영과 월드뷰리더

## CULTURE

46 땀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

60 유머 전쟁준비 | 손봉호

## BOOK REVIEW

48 서평 개혁주의문화관 | 윤성현

56 사무국 소식

## NEWS

57 5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 WORLD VIEW

2016년 5월호 | WORLDVIEW | 통권 191호



표지인물 이장로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진 신효영 | 일러스트 김규상 | 디자인 디자인집 | 제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인쇄 예원프린팅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전화 02-754-8004 | 팩스 0303-0272-4967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7가길 5, 102호(한강르네상스빌 A동)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 페이지 facebook.com/worldviewmagazine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 | 이메일 [m.worldview.or.kr](mailto:m.worldview.or.kr)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장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선포하며 청년들에게 기독교 리더십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각 영역으로 진출시키는 일을 감당해 온 한국리더십학교,  
설립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이끌어 온 이장로 고려대 명예교수를  
본지 발행인 김승욱 교수가 만나다.

인터뷰 | 김승욱 (본지 발행인)

**김승욱(이하 김)** 처음 이장로 교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전국기독교교수연합회에서 '이장로 집사입니다.'하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지금은 은퇴하시고 고려대 명예교수로, 한국리더십학교 교장으로 계시고요. 리더십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를 여쭙어 봐도 될까요?

**이장로(이하 이)** 지금 한국리더십학교가 15기 중이니, 2001년 시작하여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보다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1975년, 학교를 시작하기 25년 전에 비전이 잉태되었습니다. 그 비전이 저를 이끌어 한국리더십학교가 탄생된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대학부 임원, 고아원·양로원 방문, 노방전도 등으로 한 주에 4~5일은 교회에서 살았는데 참 기쁘고 행복했었지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나니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학부 때 부족했던 공부도 하고 진로 결정을 위한 시간도 가질 겸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런데 1975년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진로를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였습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통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칠 때에 성령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재수해서 들어간 대학생활이 재미가 없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다면 정직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처럼 컨닝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아버지의 이름이 나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모욕을 당한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 들으면서 삼사일 동안 쉬지 않고 애통해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을 묵상하는 중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 마침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뜻, 소명을 발견하였지요.

이 소명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모세, 다윗,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였고, 그런 크리스천 사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각 시대에, 각자의 상황과 삶 속에 부르심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양육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보내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비전을 주신 것이지요. 그때가 1975년이었습니다.





**김** 리더십학교가 처음 시작한 때가 2000년이니까 1975년이면 무려 25년을 준비하신 거네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준비기간에 비하면 짧지요. 예수님은 30년을, 모세는 40년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천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받고 준비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그려 보기 시작했죠.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전 그 꿈을 위해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전공인 경영으로 돈을 벌면 학교 설립도 할 수 있겠지만, 돈 버는 것은 제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부는 할 수 있겠다 싶어 교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영은 일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 인생 경영을 위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 본 것이지요. 76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3차 10개년 계획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1차 첫 10년의 목표는 교수가 되는 것, 이를 위해 미국으로 유학가서 경영학 박사가 되는 것이었고, 2차의 10년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수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수를 쓰실까 고민하다가 그 기준을 학문적 탁월성과 캠퍼스 선교로 정했습니다. 제 전공인 국제경영학은 당시 경영학에서 신생 분야였고, 이 분야를 배워 한국에서 발전시켜야겠다 싶었지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고려대 캠퍼스를 기점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 캠퍼스 선교사로 쓰임을 받고 싶었습니다. 3차 10년은 사회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하자, 어떤 형태든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큰 그림만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순

---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

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미국 뉴욕대에 입학하고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참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졸업하고도 한 동안은 뉴욕을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저와 온 가족이 눈물로 지낸 세월이었지요. 1986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교수로 오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 고려대에서 캠퍼스 선교사를 자임하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고려대 채플을 열고, 고려대 기독인연합회, 고려대 기독교교회 등을 조직하며 고려대 복음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명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향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 교수님께서 걸어 오신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리더십학교에 녹아 있네요.

**이** 그렇습니다. 설립 전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매 순간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중에는 기독교경영연구원(이하 기경영원)도 있었고, 학원복음 화합의회(학복협)도, 캠퍼스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무엇보다도 먼저 저를 훈련시켰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각 영역과 각 영역의 학문분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권하에,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학문의 영역을 재조명하는데 관심이 있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학문보다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꿈으로 리더십학교를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꿈도 비전도 좋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적어도 학교를 설립하려면 재정과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한국리더십학교(이하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죠. 아시겠지만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수, 학생, 재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수진은 전국기독교교수연합회(전기연)에서 알게 된 교수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기연은 1988년 겨울에 각 대학에서 성경공부모임을 주도하는 교수님들이 온누리교회 구내식당에 모여서 식사교제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겨울방학에 수련회를 열고 캠퍼스선교사례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장로교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류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리더십학교의 강사로 수고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1996년 설립된 기독교경영연구원(기경원)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 기독교경영학을 연구하던 교수들을 주축으로 젊은 기독교실업인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기업세계 위에 구현하자는 모토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서 말한 전기연,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경영연구원에서 만난 교수님들이 한국리더십학교를 섬기는 탁월한 교수님들입니다.

**김** 기독교경영연구원의 처음 설립자가 교수님이시군요.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설립한 것이지요. 기경원의 전신은 기독교경영연구회라 할 수 있지요. 전기연에서 만난 경영학 교수님들이 1990년부터 기업경영과 성경적 원리를 연구하면서 책도 번역하고 출판하다가, 1996년에 연구회 회원들을 포함해서 서울지역의 유수 대학에서 초빙한 크리스찬 경영학 교수들, 그리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크리스찬 전문인, Y-CBMC 회원 등 60여 명을 발기인으로 해서 설립한 것이 지금의 기경원입니다. 당시 교수의 월급이 약 200만원이었는데, 50여 명이 기금을 모아 조성했습니다. 초대원장은 제가 하고 연세대 송자 총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셨습니다. 기경원도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는군요.

**김** 조금 더 실제적인 리더십학교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15기입니다. 리더십학교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이** 학생 모집은 15년 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주중에는 각자 소속된 대학에서 수업을 하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한국리더십학교에서 신학,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여 조별 토론과 현장학습을 합니다. 1년 동안 토요일을 훈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포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 모집이 힘듭니다. 초창기에는 고려대기독교생연합회(고기연)를 비롯한 서울지역 각 대학의 기연 임원들과 선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학교의 졸업생들이 교회



와 대학에서 크리스천 친구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 기수의 정원은 42명 내외로 하고 가능한 남녀비율을 1:1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학부생이나 졸업생,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1년 동안 매주 토요일을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지와 성품을 중요시합니다. 청년 대학부나 선교단체, 시민단체의 리더 경력자는 우대하고 있지요. 매년 9~12월에 서류전형, 면접, 캠프를 통해 학생선발이 진행됩니다.

**김** 별도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네, 직장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그 직장에서 견뎌 내기도 참 힘듭니다. 리더십학교 졸업생들도 어렵게 취업해서 직장을 다니며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리더십학교에서 배



운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도 더러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졸업생들이 직장에서 탁월한 크리스천 직장인으로 살아가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직장인영성리더십아카데미(Spiritual Leadership Academy, SLA)'를 개설했습니다. 일터에서 영성과 역량으로 열매 맺길 원하는 2,30대 직장인 100인을 대상으로, 10주 과정, 토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으로 총 60시간 진행합니다. 6기까지 진행된 SLA는 3가지 핵심 가치, Christianity, Competency, Community building을 따라 자기관리, 관계와 소통, 동기부여, 전략적 사고, 남녀차이, 재정관리 등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리더십학교와는 다르게 진행되지요.

**김** 리더십학교의 커리큘럼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리더십 이론 및 강연도 있고 여러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연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방학기간 동안의 해외 현장학습인 연수(Field-Study)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관 동역회에서든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하





는데요, 12기까지 진행해 오며 어려운 점을 꼽는다면 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리더십학교의 경상비도 만만치 않은데 해외 연수까지 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텐데요, 매번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 최초로 시드머니를 후원한 곳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였어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입니다. 당시 여전도회 회장님 숙원사업이 청년 지도자 양성을 위한 캠퍼스 선교였지요. 그래서 오랜 기간 캠퍼스 선교를 했던 저에게 캠퍼스를 섬기는 방법을 물으셨고, 그때 제가 한국리더십학교 설립계획서를 만들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설립취지에 공감하여 후원금을 기부해 주셨는데, 제게는 그것이 학교를 시작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결재 신호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한국리더십학교의 이사로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재정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는 인건비, 교회 유지에 있었고, 여력이 있어야 교회학교, 구제 또는 선교 사역에 쓰게 마련인지라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어요. 이 사람들의 회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지금도 재정은 늘 빠듯하게 진행됩니다만, 처음에는 사비도 많이 냈지요. 전세금을 줄여서 쓰기도 해봤고요. 눈물로 4~5년은 지냈습니다. 경상비

는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해외 현장학습 재정은 매해 막막합니다. 그런데 매번 신기하게 채워져요. 한 번은 떠나는 전 주까지 약 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떠나기 하루 전에 통장을 보니 그 금액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는 않나요?

**이** 지금은 등록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단법인으로 입회비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회원이 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생회원이 되면 월 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도록 권유하지요. 지난 해부터 월회비를 내는 동문들의 수가 300명이 넘어서 학교의 경상비와 동문활동 지원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6~7개 교회가 매월 얼마씩 후원해 주시고요. 하지만 숙식비, 세미나, 교통비 등 해외 연수비는 여전히 부족해서 동문과 이사님들에게 특별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김** 해외 현장학습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 리더는 교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현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리더십 교육을 끝내고, 여름방학을 이용해 15~17일을 해외로 나가서 현장학습을 합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리더십의 현장 미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대략 40개 기관을 방문하지요. 세계기구(UN, IMF, 세계은행 등), 정책연구기관(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미외교연구원, 국립보건원), 세계적 NGO(인터액션, Teach for America, IJM, 미국암협회)를 방문하고,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강연을 듣고 질문합니다. 마지막 일정은 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라 할 수 있는 '리더십 씨앗'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장학습을 다녀오면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관들과 리더들을 만나며 눈이 열립니다. 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먹기도 하고요. 학생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됩니다.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니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지금까지의 졸업생 중에는 교수도 있고, 창업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 눈앞에서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이 사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쁨과 보람에 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에 고난만 있으면 누가 지속하겠어요?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제자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맡기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닐까요. 분단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고, 통일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그리고 통일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꿉니다.

**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제자들, 교수님의 신앙 고백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한국리더십학교의 표어입니다. 저를 이끌어 가는 신앙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삶의 일터 아닙니까? 내가 밟았던 삶의 현장, 그 어디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책임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요. 가정, 일터, 학교, 국회, 시장, 어디든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입니다. 이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잇닿아 있어야 해요.

**김** 하나님 나라가 한국리더십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네,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어 하나의 생활인으로 살아갑니다.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불행한 삶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각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의 이 모습일까 질문해야 합니다. 각 영역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과 떨어진 부분을 변혁해가는 것, 그리고 그 변혁을 감당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저와 교수님과 같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 하나님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국리더십학교는 크리스찬 리더십을 교육하고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크리스찬 리더십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 1동 29-26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307호

한국리더십학교

02) 929-6898 | <http://www.leadershipkorea.org/>



고등 여주캠퍼스 신입생 모집!

유 · 초 · 중 · 고 등  
기독교 고전교육기관



SICA

-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 지혜로운 리더
- 기독교적 고전교육을 통하여 균형 잡힌 지성을 갖춘 리더
-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 있는 리더

### SICA 고등 과정 입학설명회

8, 9학년(여주 기숙 캠퍼스)

- 일시: 2016년 5월 21일(토) 10시-12시
-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 유·초·중등 과정 입학설명회

유치원 - 7학년(양재 캠퍼스)

- 일시: 2016년 5월 18일(수) 오후 4시
- 장소: SICA(서초구 양재동 363)

입학상담 02.557.7710 | [www.sicakorea.org](http://www.sicakorea.org)



WORLDVIEW

# SPECIAL

---

우리의 신앙고백은 삶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  
삶이 지속되는 일터의 자리,  
일터가 창출하는 기업과  
이를 이끌어 가는 한국의 경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근거하여  
개혁해야 합니다.

# 한국경제의 위기와 중소기업



한국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심각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세기 후반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로서 한때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으며, 지금도 전 세계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아보면 1) 고용없는 성장, 2) 내수침체, 3)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 4) 가계부채 증가, 5) 양극화와 이중구조 추세 등이다. 낮은 성장과 고용창출 문제가 심각하며,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자리 부족과 소상공인

공인의 사업실패는 새로운 빈곤층 증가와 함께 가족 해체,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세수부족 상태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생산성→저성과→저소득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있는 분야가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수출마저 부진해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 중 첫 번째는 오랜 동안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대기업주도 수출의존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주력 사업분야가 대부분 성숙포화상태의 공급과잉 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선, 철강, 모바일,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에 이르기까지 구조불황 속에서 저성과 기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은 최근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건설과 부동산의 경기 견인 효과마저 미약하다 보니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이 부진한 상태에서, 고용의 절대 다수를 자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경제 활력이 전반적으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더욱이 대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집단의 폐쇄성과 지배구조가 과감한 자기개혁과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룹회장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가운데 개인의 법적,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기업이미지가 추락하는 소위 '총수 리스크

(owner risk)'가 커지고 있다. 혈연 중심의 폐쇄적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재벌권력은 관계, 법조계, 언론계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고 있다. 현재 재벌은 3대 세습까지 이어지면서 기업가정신은 쇠퇴하고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배구조개혁과 내부거래제한 강화를 통해 그동안의 리그인 폐쇄적 생태계를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 경쟁대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내수시장에서 새로운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생산기지 해외 이전 압박과 함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고임금 대기업에 구직자가 몰리고 상대적으로 보상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구인구직의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만연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서 지지부진 상태에 있다. 지난 30년간 급성장한 노동권력은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강성 정치 노조활동을 통해 대기업 중심 노조집단의 이익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을 강행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임금인상 부담을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 대기업 노조의 일방적 임금인상 압력을 견제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야만 장기적 관점에서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내수시장을 보면 유통산업에서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독과점 구조로 인한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난 20여 년간 유통대기업의 공격적 사업확장에 의해 기



존 상권을 둘러싼 기업형 대자본과 개인형 소자본간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져 왔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의한 자영업 공급과잉이 가속화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가 개입해서 영업시간 규제, 거리제한 등의 경쟁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기업과 소상공인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장 중소기업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수를 점한 업종에서 대기업의 공격적인 확장 자제를 요구하는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양자 모두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내수부진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지만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 등 연이은 악재 속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상태이다. 300만 소상공인, 560만 자영업자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내수의 기반을 형성하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의 기본 체력이 저하되고 결국 대기업도 생존기반을 잃게 된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생태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동시적 추진을 통해 선진화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재벌 권력에 대항하는 노동권력이 급성장하면서 대립갈등을 빚어왔지만 현재 상황은 재벌권력과 노동권력의 암묵적 담합하에 공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전체의 이익이나 사회 정의에 반하는 자신들만의 폐쇄적 이권보호에 충실하면서 상대적인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자영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회형 창업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를 증가시켜야 한다. 자영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어렵고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쉽지 않다. 카드 수수료 인하나 이자부담 완화 등을 통한 비용절감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 일자리를 증가시켜 고용의 자영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하여 우수 전문인력의 기회형 창업 도전 성공사례를 보다 많이 창출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좁은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회형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교육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의 고취와 함께 기업가적 역량을 키울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을 가르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도전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실패로 인한 기업가 개인의 인생실패 부담을 줄여 주고,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3년간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나 채무조정 제도 도입,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여건을 개선해 왔지만 선진국형 생태계를 만들려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일정기간 생계를 유지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과감한 사회 개혁을 통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지배하는 균형잡힌 사회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코어가 벌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초원이 황폐화되어 토끼나 여우같은 초식동물이 생존할 수 없으면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생태계의 법칙이다. 강자 중심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갑을 관계가 아닌 “너와 나”라는 인격적 관계가 지배하는 신뢰, 소통, 공감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극좌나 극우적 단순 논리를 피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수세력은 보다 개혁적이 되어야 하며 진보세력은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무대의 최변방국가에서 중심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고,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 관계 속에서 강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회 관행, 소위 갑을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초고속 산업화를 실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효율성과 경쟁력이 약한 영역의 도태나 몰락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소홀히 한 나머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의 효율성을 기본 전제로 존립하지만, 사회적 약자 집단의 몰락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동성의 약화는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창조성과 도전정신의 고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기회형 창업활성화를 통해 생존력이 높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하고, 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자영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안정된 중산층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어느 시대이든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과감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겪게 되고 결국 그 사회는 쇠퇴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이 커지게 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성장잠재력은 약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속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 전체 차원의 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눈앞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봉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면서 개혁에 동참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때이다.



글 | 한정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다. 서울대 경영학사,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MBA, 경영학 박사. 전략경영학회 회장, 중소기업학 회장, 인사조직학회 회장, 코스닥 상장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하였다.

# 경제개혁의 본질로 돌아가자



## 왜 경제개혁인가?

세계경제의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대적인 양적완화 조치(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자본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투자나 소비가 기대만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4월 21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원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생산원가의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한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과잉 공급 상황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대부

분의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심화로 재정 지출을 증대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재정 수단을 지속시키기도 어렵고, 금리 인하를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강물의 흐름이나 집안의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려워진다. 물질과 풍요의 구조를 새롭게 고쳐야 한다. 6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종교개혁의 근원적 흐름은 경제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살펴보기에 묵직하지만 간명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 종교개혁, 본질의 회복

1378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로마 교황에 대적하는 새

로운 교황이 즉위하여 교황이 둘이 되자 위클리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이라고 설파했다. 1415년에 처형당한 얀 후스는 교황의 면죄부는 허황된 것이며 당시 로마 가톨릭으로서는 실체적 진리로 여겼던 연옥의 존재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교황의 인위적 권위에 맞섰다. 1516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본으로 신약성경을 번역하여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했다. 1517년 루터의 95개조 격문은 구원의 근거는 성경과 그리스도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취리히의 온유한 군인이었던 츠빙글리가 종교개혁가로 변신하여 67개조 격문을 선언한 것은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성경이 주인이라는 깨달음 덕분이었다. 1526년 영국의 틴들은 신약성경이 흥미롭게 읽혀질 수 있도록 수려한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였고, 칼뱅은 프랑스와 스위스를 넘나들면서 1536년 <기독교강요>를 집필하여 왜곡된 기독교의 본질을 바로잡았다.

14~16세기 종교개혁의 물결은 기독교의 근원과 본질의 회복이었다. 신성하게만 여겨졌던 일상화된 권위와 전통과 관행이 오히려 백성들의 속살에 생채기를 냈고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굶은 상처와 질식된 소망을 세상에 드러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상처를 덮어주거나 진통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다. 새롭게 뜯어고치는 일(개혁)은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일상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깊어가는 고심거리

세계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희망적인 불씨는 남아있는 것일까?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온 세상이 초연결망으로 소통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기존 경제체제의 개혁을 의미한다. 개인과 기업과 국가들 간의 소통과 거래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결망을 통합하여 새로운 산업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제시하였다. 2015년 포럼에서 “불확실성”을 핵심 논의 주제로 삼은 것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지만 기대효과는 미지수이다. 우리나라도 경제개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50대 장년층의 일자리 수가 20대 일자리 수를 능가한 것은 고령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단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50대의 재취업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의 상대적 하락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나 단순 서비스직의 근로자 부족 현상은 왜곡된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반증해 준다.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기존의 왜곡된 권력과 체제와 관행에 의해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단시되었던 주장이었지만 근원과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생명력을 회복하였듯이 경제개혁도 경제의 근본에서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개혁은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의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민주화의 의미로 곡해되고 있다. 먼저 경제 활성화의 논리는 경제성장의 단맛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성장은 개혁의 가장 설득력있는 결과라고 여긴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 또는 경제성장에는 함정이 있다. 누구나 원하지만 항상 유익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0여년간 경제성장 ‘덕분에’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경제성장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경제 활성화



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달콤한 성과이지만 새롭게 뜯어고쳐서 회복해야 할 지향점은 아니다. 맛있는 음식이 반드시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식 감각은 가변적이기도 하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주체들 간의 조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헌법적 가치 가운데 하나이지만 경제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다. 경제 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역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의 주체는 국가의 공권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개혁은 주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경제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회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사안이다.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가 경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축약되는 경우도 본질을 흐트리는 주장이다.

### 경제개혁의 동상이몽(同床異夢)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이후 역대 정부마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 4.13 총선에서는 “민생경제”와 “경제개혁”이 핵심 슬로건이었다. 내수산업 활성화로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 소득 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불공정한 경제구조 전환과 매출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1,000개 육성 등이 주요 정당들의 주요 공약들이었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등 가계 부담 완화, 사교육비 경감,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 건설, 양성 평등 사회 구현, 노인 빈곤 해소 등도 나열되었는데 우선순위의 70~80%가 경제적 사안들에 집중되었다.

박근혜정부는 올 5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19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과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일부 금융 관련 법안들은 개정이 되었고 노동개

혁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논란 중에 있기도 하다. 경제 활성화나 개혁의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할 국민들은 거의 없겠지만 추진 방향이나 방식이나 기대하는 관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대기업이 벤처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벤처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기업이 성장해도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역대 정부를 통해 4.13 총선을 통해 경제개혁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구호로 외쳐지고 있는 건가? 만일 진행되고 있다면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

### 종교개혁에서 확인해 보자

종교개혁은 당시 불합리한 로마 교황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모순들을 해결함으로써 체제를 보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역사적 진보를 이루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차단되고 왜곡되고 간과되었던 믿음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본연을 되찾으려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개혁은 역사적 발전이거나 진보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이었다.

종교개혁은 일상의 삶을 바꾸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정작 나아갈 수 없도록 뒤틀려진 길을 복구하여 나침반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개혁하였다. 경제개혁은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할 수 없도록 드리워진 여건을 뜯어고쳐서 인간 본연의 삶으로 나아가도

록 길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의 위력에 져어있다. 때로는 시장이 만능열쇠처럼 난관을 뚫어준다고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개의 공격을 막아줄 피뢰침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시장’이 길을 이리저리 열어줄 뿐 어느 길이 바르게 나아가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라고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 경제를 위한 개혁

경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창 1:17) 얻고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창 1:19) 먹게 되는 원초적 조건에 근거하면, 경제활동의 본질은 노동(일)을 통한 생존이고 번영이다. 물론 여기서 일은 육체적 노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행위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노동(일)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회피하거나 훼손하거나 곡해시켜서는 안 된다. 취사선택이 가능한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본질로 이해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자본도 기술도 정보도 인공지능도 초연결망도 사람이 일하고 생존하도록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람은 일해야 하고 일한 사람은 그 대가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대가 이상으로 일하기를 요구하거나 수고 이상의 대가를 요구하는 권력과 체제와 관행들을 개혁해야 한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려는 사람의 일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땀 흘리기를 꺼려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는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많다. 경제 구조조정이나 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용자이든

근로자이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개인이든 계층이든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는 것은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노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을 겪을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은 에 대해서는 공적 및 사적 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혁이 아니라 경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득(부)의 재분배는 경제개혁의 결과로써 나타날 것이다. 경제개혁은 인간의 생존이 경제활동으로 소통되어지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오피니언면 월드뷰 2016.04.23.일자)



글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 청년실업과 열정페이 그리고 교회는?

## 01 | 청년실업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5~27세의 청년실업률이 1997년 IMF 이후 최고인 12.5%라고 한다. 이는 비슷한 시기의 미국 12.2%, 프랑스 26.1%, 스페인 51.2%에 비하면 그리 높은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미국은 16~24세, 유럽은 15~24세로 그 범위가 우리의 기준보다 좁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24세 이하의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에 재학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다. 또한 취업 때문에 졸업을 미루고 장기간 휴학하는 경우나, 남자의 경우 군대 기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계산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 자체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고용보조지표에 의해 계산하면 현재 실업률과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정부를 제외한 전문가와 언론은 이 지표를 실질실업률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12.5%의 청년실업률은 37.5%로 경충 뛰는 것이다. 게다가 청년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구직 기간의 기초 생활 보장 등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고용 유연성을 예로 들며 해직을 쉽

게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시장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해직을 쉽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또한 임금피크제(salary peak)의 실행으로 절감된 비용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자들은 노년층이 원하는 직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이 서로 다르기에 노년층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이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하여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02 | 왜곡된 인턴제도

곳곳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딱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시원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도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가의 하락 등으로 불황 속에 있으며, 이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이 2000원을 팔면 15원 남는다고 하니 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내수를 증진하고자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지정해 대통령이 나서서 소비를 장려했지만 이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불황 속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의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고, 인턴제를 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인재를 용이하게 선택하는 것과 동시에 싼값에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택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턴이란 법률 용어가 아니다.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험 고용을 뜻하는 ‘시용’이나 정식 채용 후 직업능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간을 뜻하는 ‘수습’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법망 밖에 있는 용어다. 그러니 터무니없는 ‘무급 인턴’이 넘쳐 난다. 고용부가 보도 자료에 ‘인턴’이란 단어를 쓰려면 정확한 의미부터 규정해야 한다.”(『앵그리 2030』, 59쪽) 이러한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다. 기업에서는 소위 “열정페이”, 즉 기본급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스펙이 필요한 청년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식 채용을 줄이고 수시 채용으로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적 기업 문화에서는 나이를 중시하기에 신입사원이 되도록 어리기를 바란다. 업무 능력도 있고 어린 나이여야 한다면 인턴 경력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열악한 조건에 정규직 채용도 결코 보장되지 않는 인턴이라도 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인턴을 뽑아 온 어느 외국계 명품 업체는 구인 광고를 통해 영어에 능통한 인턴 사원을 뽑는다면 식대로 월 30만 원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 업체에서 파는 가방은 하나에 1,000만원이 넘는다. 정부 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외무부에서 해외 대사관 인턴을 뽑으면서 식대만 제공하고 비행기 비용과 체류 비용 일체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실무를 배울 수 있고 정규직 지원을 위한 스펙을 쌓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의 노동력이 싸구려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인턴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를 배울 기

회가 주어질까? 대부분 복사나 서류정리 등의 허드렛 일 외에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턴제도는 국가와 기업이 사회의 일꾼을 키우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며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일 수 있다. 필자가 영국에서 근무할 때 만난 스위스 청년들은 꽤 좋은 영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한국 유학생중에서도 집안 형편이 좋은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였다. 그런데 이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기업에서는 이들이 원하면 영어나 프랑스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언어 연수를 일 년에 두 달 동안 시켜 준다고 했다. 비용 일체는 기업이 부담하였다. 이렇게 교육시킨 인턴 사원이 자신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인턴 기간에 A라는 기업에 적성이 맞지 않아 B라는 기업으로 가고 다른 사람이 A 기업에 와도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인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들여 키운 인턴을 다른 회사에 빼앗겨 손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진다면 그런 사고방식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 책임의식이 없는 인턴제도는 말 그대로 불황 속에서 인력 감축으로 비용절감을 노리는 기업이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꼼수로 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 03 | 기독교 윤리적 평가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인간다운 대접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통해 “모세



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 하심이나”라고 말한다. 이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을 위해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소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명기의 말씀은 맥락상 일하는 소에 대해 인색하게 대하지 말라는 동물 복지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 동물에게 일을 시킬 때도 무자비하게 착취하지 말고 정당한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은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하물며 인간에게는 어떻겠느냐고 고린도 교회에 역설하고 있다.

소는 인간이 곤궁하면 식량으로 잡아먹어도 되는 짐승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위해 일하는 소를 인위적으로 배고프게 하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물며 인간이 인간을 위해 일하는데, 그 일이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연명하기 어려운 급여를 쥐 가면서 열정페이라고 정당화한다면 이는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어찌면 인간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비인격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무섭고도 비도덕적인 사고방식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또한 신명기 15장과 레위기 25장에서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본문을 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상당한 돈을 빌려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아 종이 된 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종이 된 채무자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여기라고 말한다. 품꾼이 품삯을 받는 고용된 노동자를 의미한다면 동거인은 나그네(sojourner)를 말하는 것이

다. 나그네란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고용된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아나 과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의 돌봄을 받는 대상이었다. 특별히 3년마다 걷는 십일조는 저축하여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의 궁핍함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신명기 14:28, 29). 그러므로 채권자는 종이 된 채무자에 대해 두 가지 의무 사항이 있었다.

첫째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종이나 노예가 아닌 노동자로 대하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종으로 일하는 기간을 돈으로 환산하여 빚진 돈을 다 갚을 경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만약 너무 많이 빚져 오랜 기간 일해야 하는 경우는 7년째 회년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했다. 이에 더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유인이 될 경우 그를 그냥 내보내서는 안 되고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넉넉히 챙겨 줘야 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판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대접해야 하며, 그의 노동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실업을 불모로 삼은 열정페이는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식주를 보장해 주어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여기고 이들의 필요를 위해 연대 책임을 져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 채무자는 온전히 채권자의 빚을 노동을 통해 갚을 수 있었고 빠른 시일 안에 종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써 한 사람이나 가족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었던 것이다.

## 04 | 따뜻한 교회

최악의 청년실업률, 늘어나는 비정규직, 왜곡된 인턴 제도는 청년들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로 부르거나, 인간관계,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고 하여 오포세대로 불리게 만들고 있다. 이를 볼 때, 청년들이 과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구축되어 있는지 의심스럽다. 혹시 그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문제를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 연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따뜻한 어른들의 진심 어린 공감의 없다면, 거지에게 적선하는 식의 무시와 멸시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은 20%가 넘는다. 만약 이들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자신의 자녀가 아닌 우리 자녀의 일로 생각을 전환한다면 문제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복잡한 경제 원리나 정치문제가 아닌 순전히 가난한 자를 측은히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길 바란다. 경제학자나 관리, 기업인, 정치가들은 더 치밀하게 이 문제를 분석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냉정하게 청년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청년들은 숨막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경제, 정치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배려와 환대의 공동체로 청년들의 숨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05 | 교회의 책무

글을 맺으면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의 책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일을 4장에 기록하

고 있다. 그것은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낭독 말미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바로 회년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에 회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이었다. 이는 영적으로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상적인 고용시장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이들에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의의 대변인, 청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 아닐까? 마지막으로 영국의 여성 신학자인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놀랄 만한 현상이긴 한가? 어떤 종교가 자기 삶의 90%에 관심이 없다면 누군들 그런 종교에 관심을 두겠는가?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하다』,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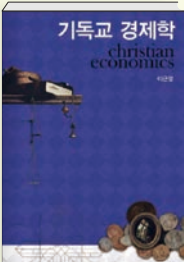


글 | 이춘성

국제 라브리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으로 사역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고 고신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 박사 과정(Ph. D.)에 있으며, 세종시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 함께, 더 깊고도 넓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3:14-19



### 기독교 경제학

저자 | 이근영 | 스텝스톤 | 정가 14,000원

경제학의 기본 관심사-수요와 소비자, 공급과 기업 행태, 경제체제, 정부의 역할, 빈곤 문제, 환경문제, 노동과 실업, 국제경제-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설명하면서, 성경 안에 담긴 경제학의 원리를 풀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모든 경제체제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존재와 이웃 사랑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며, 또한 기독교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줄이고, 유용성을 높여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론을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조망하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성경속의 경제학

저자 | 이윤재 | 숭실대학교출판부 | 정가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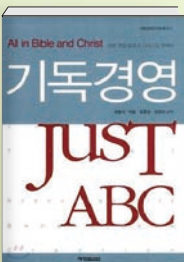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경제원리를 찾아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원칙들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윤리 차원으로 풀어 내고 있다. 저자는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경제학이 “바알의 경제학”에 가까운 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대안으로 성경의 경제학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경제원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켜 경제적으로 균형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성경이 말하는 경제원칙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현대의 경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경제학 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저자 | 노널드 헤이 역자 | 전강수 | IVP | 정가 11,000원 원제 | Economics Today

성경적 기초, 기독교와 경제학의 관계, 경제학 분석,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경제 성장 등의 주제를 다루는 이 책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경제현상을 분석한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현대경제학을 바라보는 적절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경제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은 성경적 원리를 학문 영역에 도입하는 과정을 뚜렷이 예시하는 탁월한 본보기로서 경제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심 있는 많은 독자들이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 기독교경영 Just ABC

저자 | 배종철 · 박철 · 황호찬 · 한정화 | 에영커뮤니케이션 | 정가 12,000원

오늘의 시장 경제 현실에서는 기독교경영 이전에 생존과 성장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기업인도 많다. 하지만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적 원리로 경영할 때 세상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영학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경영의 원리와 제도, 시스템과 운영, 실천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며, 성경에서 다섯 가지 기독교경영 핵심원리를 도출했는데, 그것은 창조, 책임, 배려, 공의 및 신뢰이다. 인사조직, 리더십, 마케팅, 영업, 회계정보, 재무와 투자, 전략과 혁신 분야에 서 구체적인 기업사례를 가지고서 5가지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 책은 기업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실업인들의 필독서이다.



## 오래전 그날

언제인지도 모를 오래전 그날,  
그때가 가끔 생각나십니까.

더운 여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여  
좁은 공간에 딱딱딱 붙어  
번역된 책도 몇 권 없어  
원서를 가져다가  
함께 읽고 번역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기쁨에  
늦은 밤에도 함께했던 그날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는 그때의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님의십자가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 신학대학원 M.Div 또는 동등자격  
졸업자로서 복음주의적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

**준비서류(1차)**

- 1) 이력서 : 학력과 확인 가능한 기관 연락처,  
교회 이력, 가족사항 등
- 2) 자기소개서 : 개인성장 배경, 가족 내용,  
목회 경험 등

**지원마감**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출처**

주님의십자가교회 행정본부  
홍명식 장로 : [hong2290@gmail.com](mailto:hong2290@gmail.com)  
010-5226-4464

WORLDVIEW

# COLUMN

---

##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중년의 뇌는 성장을 멈추었는가?

묻고 답하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5)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구원

Be-Live-r  
여성, 그대의 사명은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

# 중년의 뇌는 성장을 멈추었는가?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뇌는 자궁 내에서 기본적인 자극을 통해 성장한다. 세상에 태어난 신생아의 뇌는 많은 자극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극을 통하여 뇌는 발달하게 된다. 갓 태어난 신생아의 뇌에는 대략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약 50조 개의 신경연결부위가 있다. 이런 구조는 호흡과 반사작용, 그리고 심장박동 같은 기본적인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은 태어나고 불과 수개월 동안 급격하게 발달한다. 신경연결부위는 약 1000조 개 정도로 늘어나고 생후 3년 안에 대뇌회로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틀이 완성된다. 따라서 생후 3년간의 신체적, 정서적 자극이 아기의 발달에 중요하다. 그러나 3년간의 발달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간은 아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오히려 뇌가 삶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나이에 맞게 발달한다는 것을 밝혀 가고 있다.

뇌의 기능적 발달은 앞에서부터 뒤로 진행된다.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부터 발달하여 후두엽으로 발달해 간다. 3세 이후 뇌의 발달은 부위별로 진행되는데, 3~6세까지는 사고와 인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에서 신경발달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7~12세까지는 입체와 공간적인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과, 언어기능을 관장하는 측두엽 부위로 발달이 집중한다. 13~15세까지는 시각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후두엽 부위로 발달이 전개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뇌는 더욱더 연결망이 발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도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뇌는 계획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고도의 기능을 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보다는 대뇌 변연계(Limbic System, 감정과 기억에 중요한 기관)의 지배를 많이 받는 시기라 어떤 때는 꽤 생각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갑자기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어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한다.

청소년기의 뇌는 대뇌 변연계에 있는 편도체(Amygdala)가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달하면서 감각적인 자극들을 감정과 연결하는 기능이 발달한다. 청소년들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적으로 변연계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발달로 추상적인 생각이 확대되면서 사회적인 관계에 낯설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민감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다. 이 시기의 변화는 많은 부분이 호르몬 변화와 관련있다. 특히 옥시토신(Oxytocin)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모두 나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변화해 가는 우리의 뇌는 2,30대를 거쳐 4,50대와 60대를 바라보는 뇌로 바뀌어 간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뇌는 성장곡선의 정점을 치고 쇠퇴의 시기로 넘어가야 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과학은 창조의 섭리를 증거하듯,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지고 있고, 우리의 뇌 또한 새로운 국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증거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과 함께 뇌도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교육을 받아 왔다. 머리카락이 희어지고 군데군데 빠지기까지 하면, 우리의 뇌도 회갈색으로 변해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실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은 중년의 뇌가 반드시 나머지 중년의 몸처럼 변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중년을 40~65세 정도로 본다. 이 시기의 뇌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쇠퇴하는 기능도 있지만 끝까지 유지되는 기능도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절정에 달하는 기능도 있다. 기억의 능력은 줄는다. 특히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누구나 쉽게 잃어 간다. 그러나 사람에 관하여, 일에 관하여, 재정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훨씬 더 강해진다.

1956년에 시작되어 40년간 지속된 시애틀 종단연구(Seattle Longitudinal Study)는 중년의 뇌에 관한 이해에 좋은 출발점이다. 이 연구는 약 6000명의 건강한 사람들의 정신적 기량을 측정했다. 20세에서 90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녀가 반반으로 구성되었다. 연구팀은 뇌의 기능에 관한 6가지 지표(어휘, 기억, 계산능력, 공간감각, 지각속도, 귀납적추리능력)를 7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중년 때 받은 성적이 그 사람들의 20대 때보다 좋았다는 것이다. 즉 어휘, 언어기억, 공간감각, 귀납적추리에서 최고의 수행능력을 보인 나이는 40세에서 65세 사이였다. 특히 늘 독서 등을 통해 언어 및 사고력을 사용하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수행능력의 유지를 보여줬다.

자녀들이 빠르게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도 슬퍼하지 말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책하지 말자.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변해 가는 겉모습에 상심하지 말자. 우리의 피는 3개월마다 늘 새로운 피로 교체되고 있고, 내장을 덮고 있는 세포들은 이틀에 한번 씩 새롭게 옷을 입는다. 딱딱해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뼈도 더디지만 수개월마다 새로워진다. 우리가 겉모습이 변해 가는 것을 보면서 섭섭할 때, 우리 속에서는ダイナ믹한 변화와 성장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년의 뇌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글 |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생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생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구원

성경을 읽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대면하게 된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같은 주제는 다양한 수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개념들을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주일의 12-18 문은 바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인용되는 증거 성구는 모두 81개나 되는데, 그만큼 교회의 역사에서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뜻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주제들을 다룰 때에, 그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면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교훈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종보자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기에 요리문답에서는 성경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제가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 종교개혁이 발견한 하나님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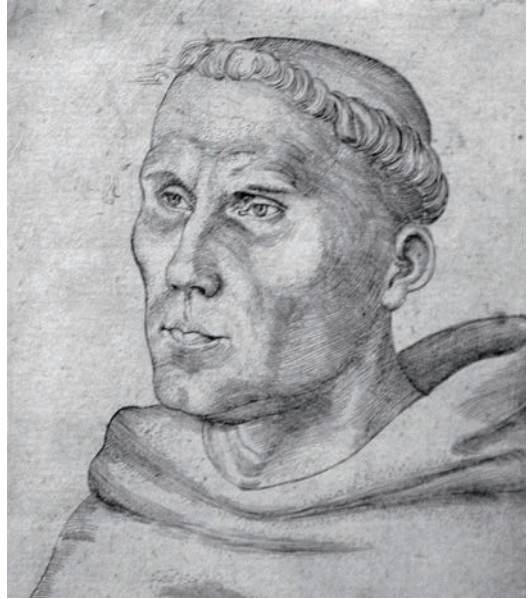
제5주일의 내용은 “우리의 구속(救贖)에 관하여” 가르치는 제2부에서 첫 부분에 해당한다. 앞서 제2-4주일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철저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이 부분에서는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쉽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제5주일의 12-14문에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묻는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12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13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14문)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에,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개혁자 루터로 바뀐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1545년에 출간된 한 책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싫어하였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선생들의 용례와 관습을 따라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철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르던 방식대로 하면, 이 의는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하고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의’를 말하는 그러한 의였다.……나는 의로우시고 죄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워하였다.……나는 밤낮으로 이것을 묵상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나는 “복음



수도사 시절의 마르틴 루터 (루카스 크라나흐 그림, 1520년)

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의 전후 문맥에 집중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러한 의로서,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이다.<sup>1)</sup>

루터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의’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사람의 선행(善行)을 구원의 근거로 가르치던 중세 천년의 무지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sup>2)</sup> 1517

1) M. Luther, Werke, 54권 185쪽 17-25행; 186쪽 3-13행. 유해무, “오직 믿음으로 - 루터가 이해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 루터의 믿음과 신학』 (성약출판사, 2011), 62-63에서 재인용.

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대문에 붙인 95개조의 제1조는 신자의 회개가 평생 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죄의 문제는 금화를 주고 면벌부를 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음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

마르틴 루터는 시편과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였는데, 그 외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예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보고 “여호와와 ‘의로우신 일’을 칭술(稱述)하라”(삿 5:11)고 노래하였다(참조. 삼상 12:6-7).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사 46:13),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사 45:21) 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을 나란히 두고서 말한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시 98:2)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구원이 비슷한 의미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대로 의를 행하시는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완성된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5-6)라는 이름을 얻으셨다. 여호와와 의로운 종이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 대(사 53:11).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사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대문에 95개조를 붙이는 루터 (상상화)

람을 의롭게 하며(롬 1:17), 이분을 믿는 것이 신자의 의이다(빌 3:9).

###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3문에서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고백한다. 또한 14문에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고 묻고 이렇게 답한다.

**14문답:**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2) 로제, 『마틴 루터의 신학』(한국신학연구소, 2002) 77-101;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논총』, 2집(2002), 119-136; A. McGrath, Luther's Theology of Cross (Blackwell Publishers, 1985), 119-128.



하이델베르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없다.

###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자연스럽게 중보자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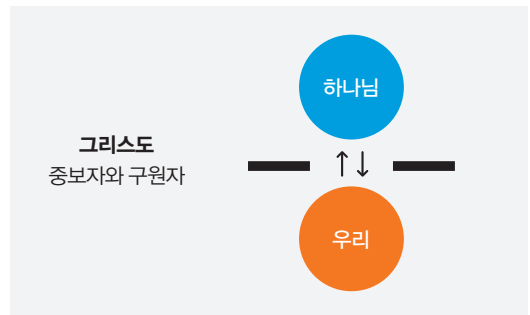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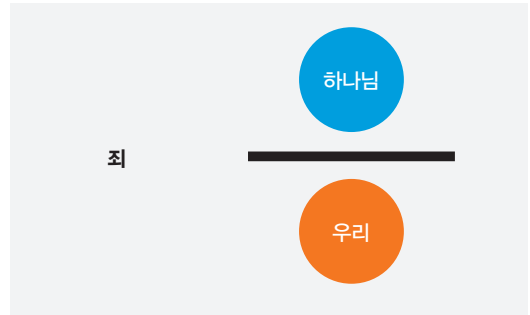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15문은 “그렇다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든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를 찾아야 하는가? 여기서 요리문답은 “찾아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중보자를 찾아 여행을 떠나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질문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중보자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의미이다. 제1문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우리가 선언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차서 있게 가르치려고 ‘찾아야 합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뿐이다.<sup>3)</sup>

‘중보자’는 적대적인 두 편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 내는 일을 한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후 5:18).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의 일만 하신 것이 아

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동시에 ‘구원자’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의로우신 분이였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의식적으로 다 이루셨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며,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히 10:7) 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셨다(히 10:10).

3) F. Klooster, Our Only Comfort (Faith Alive, 2001), 164-65, 1154-1167; O. Thelemann, An Aid to the Heidelberg Catechism (Douta Publications, 1959), 48-49.



루터가 95개조를 붙인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 (SCHLOSSKIRCHE)

###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와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모두 버리게 만든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팔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사 64:6) 하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사실 ‘우리의 죄악’과 동의어이다. 우리가 잘하였다고 내놓는 것들은 모두 ‘더러운 옷’ 곧 정결 예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옷과 같아서 조금도 내어 놓을 만한 것이 못된다. 정결 예법에 따르면 몸에서 나온 피가 옷에 묻은 경우 즉시 빨아야 했고(레 15:27), 그가 손댄 것이나 접촉한 것도 모두 빨아야 했으며(레 15:20-23), 유출이 그친 후 8일째 되는 날에는 비둘기 둘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했다(레 15:29-30).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생각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볼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의 의는 모두 더러운 옷과 같고 죄악과 동의어일 뿐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후에 복음을 믿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일 뿐이다. 자기의 가난함을 마주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첫걸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제5주일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지니는 엄위한 면을 깨우쳐 주면서, 동시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어떤 해설가의 말처럼, “좋은 의도들로 포장된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다.”<sup>4)</sup>

4) A. Pery, The Heidelberg Catechism with Commentary (United Church Press, 1963), 41.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



## 루터의 도시를 가다

# 03

비텐베르크



내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년 전부터 기념행사들을 시행해왔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에 세속화가 거센 지금 시대에, 종교개혁의 슬로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에어푸르트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루터는 비텐베르크(Wittenberg)로 보내진다. 1508년이였다.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봉사하며 신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경건한 가톨릭 수도사, 이제 사제가 되어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신도들에게 대속(代贖)의 길을 가르치는 신부가 되었다. 그는 북서쪽에 위치한 이 도시로 발길을 옮겼다. 앞으로 인생에 어떤 대전환이 이뤄질지 아무 것도 모른채..... 그가 독일, 나아가 유럽, 아니 세계를 뒤흔드는 개혁의 도화선이 될지는 그때까지만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1517년 종교개혁이라 불리는 대사건이었다. 루터 스스로도 자신이 그 개혁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동하심(Shaking of God)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시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하여 막아설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성을 진동하시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산을 진동하시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은 더욱 평평하게 될 것이다. 산들이 내려앉아 대로를 만들 것이며, 그 대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진동하시면 인생은 대역전을 맞보게 될 것이다. 낮은 자는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신앙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섭리라 부른다. 비텐베르크의 루터,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사용하시려 예비하신 것이다.

이곳에서 루터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도덕철학을 가르쳤다. 1509년에 잠시 에어푸르트로 돌아간 그는 성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교양학부 교수로 임명받게 된다. 사제로, 박사로, 교수로 그의 인생 여정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동안 여러 가지 의문과 논쟁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젊은 학자의 내면에 쉬지 않고 웅숭음치는 질문들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는 신앙의 고향 로마로 가서 해답을 얻고자 마음먹는다.

**글 |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

이 글은 <연합기독뉴스>에 실렸던 글임을 밝힙니다.



#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이 만난 여성, 그대의 사명은

한신영 선생님(전 샘물초등학교 교장, 현재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 박사과정)과 함께한 수다

함께한 리더READER | 김고운, 나연아, 최선희



2016년부터 시작된 월드뷰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 월드뷰리더READER.  
가벼운 마음으로 모여 월드뷰를 읽고,  
칼럼니스트 한분과 함께 칼럼과  
미처 쓰지 못한 뒷이야기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호  
〈종교개혁의 정신과 가정의 신앙교육〉의  
한신영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응하라!

중세시대에 사제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어요. 그들은 결혼을 개혁하면서 가정을, 사회를 개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말씀’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어요. 실제의 삶이었죠. 암울한 중세시대의 상황을 들여다 볼수록 종교개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대비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한 기독교교육,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공립학교를 만들고 신학을 가르치는 등을 했죠. 어느 거창한 사람이나 조직이 ‘종교개혁을 하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개혁된 한 사람이 작은 일에도 신앙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반응해서 종교개혁에 이룬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삶, 우리에게도 종교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의 삶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독교 학교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곳, 가정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인 가정경건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삶의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교회사, 특히 종교개혁사에서 발견하였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만큼 직접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정정숙 지음)이라는 책을 보니 종교개혁자들은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암흑과도 같은 시대 속에서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이를 배우고 가르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나의 나뉘를 배워요. 교만한 내가, 인내심 없던 내가 자녀를 통해 성장하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혼이라

가정경건회는  
예배나, 큐티 설교가 아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예요.

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직접 겪고 자신이 그리 경험했기에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정경건회의 표류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자 해서 아이들이 3살부터 가정경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경건회를 시도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심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마다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배웠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남편과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인형극도 해 보고, 성경 동화나 그림성경을 읽기도 하고 커서는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교리도 하고요.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반응의 시기에 낙담도 하고 고민과 방황도 겪었지요. 뭐든 시큰둥한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한다고 아이가 경건해질지도 고민하고요. 이런 시기에는 무슨 방법을 써도 아이들은 늘 지겨워해요. 방법이나 콘텐츠가 아니라 아이의 반응이 힘들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식사할 때마다 성경을 봤는데, 저녁시간에 모이는 10분, 15분이 정말 어려워요. 힘들 때는 중단도 했다가 다시 힘을 내어 시작하고 그 시간을, 자리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 가정경건회가 우리 집 문화가 되더라고요.

가정경건회는 예배나, 큐티, 설교가 아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예요. 성경을 함께 읽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고, 말씀을 잘 알게 해주는 것이지 억지로 적용거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 짧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하나의 일상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김고운** 사실 집안에서 부모와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교회 안 간다고 혼나거나 교회에 대해 대화는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신앙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거든요. 철들고 나서 엄마와 가정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도 예배지만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기도제목으로 나누는 일상이 늘어나 삶 속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서로가 나누는 대화도 깊어지고요.

가정경건회가 효과가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아요. 효과의 기준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경건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큰 효과이자 은혜예요.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경건회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하기를, 한 집안의 책임자이자 영적 리더라는 것을 가족 앞에 자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 아들이 밤 11시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삶으로,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삶 속에 배어나는 것이 열매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해요. 요즘처럼 가족 간의 대화마저 사라지는 시대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죠.

**최선희** 어려서부터 저희 집도 가정예배를 했지만, 그냥 함께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저희 눈높이에 맞는 방법은 아니었지만요. 그때 엄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철들어서 생각해 보니 가정예배란 부

모님의 신앙과 사상이 어떤지 들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이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어요.

사실, 가정경건회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쓰고 있다는 것이 큰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때예요.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통해 영광을 취하려는 유혹이 어마어마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의 열심으로 채워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솔라sola'가 참으로 맞아요.

### 좋은 엄마가 되는 꿈을 꾸세요.

엄마가 되었을 때 깨어 있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보다 영향력이 큰 옆집 아줌마에게 휘둘리게 되요. 엄마의 역할이 정말 커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여성의 사명이 참 커요. 다음세대를 키우는 것은 엄마예요. 좋은 엄마가 되려면 환난의 때(아이가 어릴 때에는 너무 힘드니까)에 대비하여 먼저 내가 성장해야 해요.

**나연아** 형부의 직업상 출장이 잦다 보니 엄마로서 언니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커녕 통제도 어렵더라고요. 청교도들의 교육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모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내 경건생활도 어려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평생을 살아갈 터전, 가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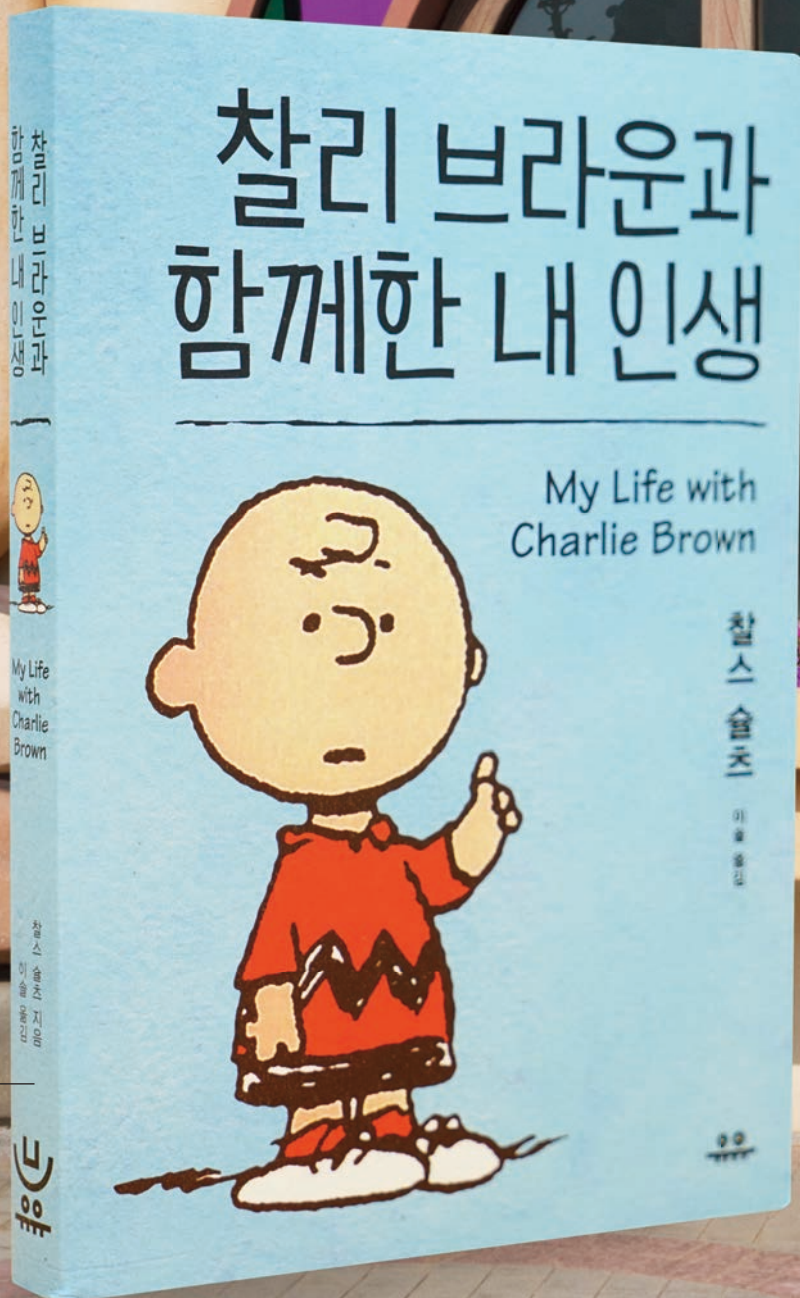
결단해야 해요.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은 어려워도 우선 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일단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연습하고 훈련



을 해야 환란같은 그 시기에(웃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훈련이 되어야 아이도 훈련하고 훈육할 수 있어요.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니 우리는 소리를 치고 혼은 내지만 아이를 제대로 훈련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예배드릴 때 돌아다니면, 담요를 작게 펼쳐놓고 장난감 하나를 주어 시간을 정해 놓은 그 시간만큼 담요를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훈련은 안하고 바로 혼내지요.

어렸을 때 구체적인 지침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그 지침대로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을 해도 안 될 때 훈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전제되어야 신앙의 훈련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해요.





Recommend ●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

찰스 슐츠 지음 | 이슬 옮김 | 유유

찰스 슐츠가 직접 쓴 기고문, 책의 서문, 잡지에 실린 글, 강연문 등을 묶은 책입니다. 다수의 미출간 원고가 수록된 이 책은 슐츠 개인의 역사는 물론 코믹 스트립을 포함한 만화라는 분야에 대한 그의 관점과 애정,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피너츠>에 대한 갖가지 소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를 만들게 된 창작의 과정과 그 비밀을 오롯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삶에 중심을 잡아준 종교와 철학에 대한 사색도 담겨있습니다.

Thanksgive's Think

##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기록으로 남는 법

뇌는 사물이나 상황의 변화 값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보자. 지난 주 어느 평일에 뭘 했는지 생각이 나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큰 변화가 없는 하루를 산다면 뇌는 기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루하루를 따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찰리 브라운과 함께한 내 인생」은 찰스 슐츠가 만화와 함께 써온 평범한 일상을 남긴 기록이다. 그는 사랑했고, 결혼했고, 자녀를 낳아 길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의 일상은 특별하게 기억되었다. “내가 신경을 쓰는 문제는 점점 나아지는 일에 관한 것이다. 나는 매일 전날의 일을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전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조금씩 나아지기를 원했다. 어제와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루하루가 내 머릿속에 기록된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할 때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다. 찰스 슐츠는 <피넛츠>의 캐릭터들을 성실하게 사랑했고, 이 사랑이 그를 살아 있게 했다. 그리고 그는 진득하게 앉아 만화를 그려내는 지루한 작업에서 경이를 발견하며 생명력을 이어갔다. 성장은 살아 있는 생명체에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다만, 성장이라는 것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작았던 키가 자라는 것만 뜻하겠는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을 지는 인격의 성장도 필요하다. 일상은 평범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 우리가 매순간 인식하지 못해도 조금씩 온전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일상을 지탱하기 버거운 어느 날, 우리는 다시 살아갈 것이고 일상에 지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keyworld

만화가의 삶 | 코믹 스트립 | 찰리 브라운 캐릭터 | 아이디어 | 마감압박 | 끈기와 인내

### Thanks Book

땡스북!

좋은 책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매거진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 땡스북

우리는 압니다. 책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책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일반도서를 읽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경건서적만 읽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선택은 분별없이 사람들의 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울타리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울타리 밖에서 해매게 됩니다. 땡스북은 이런 고민을 위해 나온 기독교 지성인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진 교사, 부모, 리더, 청년 그리고 교역자로서 일반도서를 올바르게 만나길 원한다면 땡스북을 권합니다.

땡스북은 신앙인이 일반도서를 만나는 징검다리입니다.







## 김재운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 교회 중심적 기독교 문화관

김재운 지음 | SFC출판부

한국교회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개혁주의 문화관’,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문화적 개혁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에 기초한 개혁주의 문화관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성숙 이원론을 극복하고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對)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주일 하루 뿐 아니라 한 주간의 6일이 중요하며 예배당 안 뿐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점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한국교회에 가져다 준 큰 공헌이었다. 한국교회는 성(聖)과 속(俗)을 구분하는 이원론이라는 질병을 매우 심하게 앓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앓고 있는 한국교회의 심각한 중병(重病) 중의 하나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는 군부독재 치하의 무시무시한 공안(公安)적 분위기가 상존해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사회적 불의, 부조리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몸살을 앓아왔다. 여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성(聖)과 속(俗)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인해 정치, 사회적 현실에 침묵하거나 때로

는 야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일부 사회참여에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보수적 한국교회에는 지금도 역시 타계적(他界的)인 내세 중심의 신앙과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죽음 이후와 개인의 내면적 경건, 그리고 교회 제도권 안에서의 생활로 몰아가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특히 성과 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신앙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폐쇄적인 종교의식의 영역과 개인의 내면적 신앙의 영역으로 가두어 버렸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경건과 교회생활, 복음전파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한국교회는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축복과 번영의 신앙, 소위 기복신앙적 태도를 부추겨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태는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오직 자신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대해 도피적이거나 타협적인 양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주의 문화관이 한국교회를 교정하고자 했던 지

## 개혁주의 문화관이 말하는 ‘교회 중심성’이란

먼저 “교회가 신앙고백적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전제”한다.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개혁주의 문화관은 문화적 적극성에 기초하여 한국교회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점, 성숙 이원론과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상당 부분 한국교회의 의식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생, 그리고 기독교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교회를 치료하는 효과를 낳았다. 종래에 사회 참여는 대부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에 기초한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의 전유물로 여기던 분위기에서 소위 보수적 복음주의권의 사회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개혁주의 문화관을 토대로 펼쳐진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많은 부분 해소하는데 기여를 했다.

김재윤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저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한 비판은 이미 이천 년대 초반에 소위 ‘기세비판(기독교 세계관 비판)’이란 이름으로 <복음과 상황>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기세비판은 상당 부분 퇴색되어버린 실천부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원인이 기독교 세계관, 곧 개혁주의 문화관 자체에 있

는 결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FC를 통해 최근 출간된 <개혁주의 문화관>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일 수 있다. 나아가 종래의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놓쳤던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환기시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서 상아탑을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향하여 개혁주의 문화관이 놓쳐서는 안 되는 ‘교회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회복해야 할 동력을 바로 개혁주의 문화관이 지니는 ‘교회 중심성’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키워드인 ‘교회 중심성’의 의미를 밝힌다. 하향 평준화된 한국교회에서 ‘교회 중심성’이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캄펜(Kampen)신학대학교 유학 중 네덜란드 해방과 개혁교회에서 8년 이상을 성도로 생활한 저자에게 ‘교회’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는 신학실종, 윤리실종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개혁주의 문화관이 말하는 ‘교회 중심성’이란 먼저 “교회가 신앙고백적 기초 위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힌다. 기실 <개혁주의 문화관>의 현실적 실현은 튼튼한 개혁교회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9) 그는 이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문화관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점에서 있는 글라스 스킨더, 그리고 대안적 문화관으로 제시하는 데이비드 밴더루넨과 J. 다우마 등 모두에게서 ‘교회 중심성’이란 심대한 요소를 읽어낸다. 이들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관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저자가 말하는 ‘교회 중심적 개혁주의 문화관’은 기



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를 그리스도-교회-피조세계라는 삼각관계 속에서 진행한다. 이것은 종래의 문화에 대한 논의의 주를 이루었던, “한 개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문화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사회문제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대조된다. (23) 개혁주의 문화관의 핵심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우주적, 왕적 통치’에 대한 고백은 늘 교회를 통하여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강조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3) “우리가 세상문화를 이해하고 변혁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 받는 것”과 “교회에 주어지는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책임있는 군사로 올바르게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4)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된다.

무엇보다 <개혁주의 문화관>을 통한 저자의 중요한 공헌은 ‘교회 중심성’을 담지(擔持)한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재평가라는 점에 있다. 2부에서 저자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기초를 이루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의 배경에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 프랑스 대혁명의 계몽주의 정신뿐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생각까지 지배하고자 했던 국가의 지배가 존재했다. 카이퍼는 계몽주의라는 근대정신과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 오직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원했다. “그의 관심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있었다.” (54) 이러한 토대 위에 지속된 그의 관심은 “하나님도 주인도 없다” (73)는 무제한적 자유를 갈망하는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에 반(反)하여 “세상의

한 치도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85) 두는 것이었다. 그의 문화관의 핵심적인 요소인 일반은총론 역시 이러한 ‘교회 중심성’에 입각해 설명된다. “특별은총 아래서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는 제도적인 교회가 있다면, 이 제도적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건설하는 기독교적 가정, 언론, 학교, 각종 연맹 등을 포괄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있다.” (85) 일반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소명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문화관 전체는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 통치 사상에 기초해 있다.

3부에서 저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던 끝라스 스킨더의 문화관을 소개한다. 끝라스 스킨더의 문화관은 한국교회에 좀처럼 소개되지 않았던 문화관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흔히 스킨더는 카이퍼에 대한 반대자로서 카이퍼의 일반은총론을 반대하고 영적인 반립(反立), 다시 말해 반(反)문화적인 특징을 강조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서는 스킨더와 카이퍼가 결코 적대적 대립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스킨더는 카이퍼가 말한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치라도 없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142) 그 역시도 개혁신학자로서 ‘문화명령’을 강조한 문화신학자였던 것이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주의’, 다시 말해 ‘교회 중심성’을 담보한 문화적 사명이었다. 스킨더가 강조한 ‘문화명령’의 핵심적 주체는 바로 교회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저서에서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과 일반은총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삶이 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었다. (147) 그가 강조한 영적인 반립 사상은 흔히들 오해하듯이 반

(反)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만연한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회가 문화적 사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인식이 있다. 교회는 문화적 주체로서 기독교적 문화 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 (162)

계속해서 저자는 4부에서 문화관에 대한 대안적인 개혁주의 패러다임들로서 데이비드 밴드루넨과 J. 다우마를 소개한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카이퍼와 스킨더의 견해를 ‘문화 변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견해가 문화에 대한 과도한 적극성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한다. 좀 더 다원화되고 상대주의적 관점들이 만연한, 소위 ‘기독교 없는 사회’가 도래한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78) 따라서 밴드루넨은 ‘자연법-두 왕국론(Natural law-two kingdoms paradigm)’을 통해 다우마는 ‘나그네 됨’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관을 개진시켰다. 밴드루넨은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 곧 두 왕국에 속해 있는데 세속의 왕국에 참여해서 그것들을 변혁하는 삶보다는 철저하게 영적인 왕국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상과의 적절한 간극에서 오히려 교회는 세속화를 막으면서 나아가 현대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우마는 나그네로서의 교회는 하늘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자세라고 주장했다. (198) 문화적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대한 ‘즐김과 누림’이다. “칼빈의 의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선하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197) 저자는 다소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사람의 문화관에 대하여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고 부연한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교회의 위상이 악화되고 다원화된 현실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세상과 문화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문화관으로 두 사람에게 대한 소개를 끝낸다.

김재운 교수가 제시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핵심은 한 마디로 ‘교회 중심적 문화관’이다. 이것은 교회만이 문화의 주체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터전은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최태연 교수의 지적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그동안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생명력의 근원으로서의 교회를 벗어난 지성운동으로서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김재운 교수의 <개혁주의 문화관>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 | 윤성현

합동신학대학원 (M. Div. 목회학)과 고려신학대학원 (S.T.M. 기독교 윤리학)에서 공부하였으며 한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청소년, 청년 대학생 사역에 전념하였다. 현재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과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총무로 섬기고 있으며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려는 한 시도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과정 (Ph. D.)에서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과 개혁주의 문화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다. 기독교세계관과 기독교윤리의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있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6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10,000	인건비	일반급여	3,744,000
	임원회비	990,000		기타급여	0
	일반회비	5,910,000		소계	3,744,000
	기관후원금	4,7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1,025,000		사무실관리비	446,000
	CTC 후원금	130,000		통신비	905,740
	학술지원금	1,000,000		우편료	16,270
	기타후원금	1,779,970		소모품비	48,850
				비품	1,393,900
				식비	419,890
				복리후생비	695,690
				퇴직연금	309,250
				회의비	64,900
				회계용역비	275,000
				기타	270,494
	소계	16,494,970		소계	5,395,984
기타수입	기타수입	385,235	연구지원비	CTC 후원금	89,450
				학술지원금	1,000,000
	소계	385,235		컨텐츠제작지원금	2,669,730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소계	3,759,180
	학술지심사비	350,000	출판(회지)	월드뷰구입비	2,500,000
	학술지게재료	3,837,500		발송비	777,770
학회	자료집판매	10,000		소계	3,277,770
	소계	4,297,500	학회	학술지인쇄비	0
	당월 수입액	21,177,705		학술지발송비	0
	전월 이월액	50,826,065		학술지심사료	0
				학회기타	100,000
				소계	100,000
당월 수입액		21,177,705	당월 지출액		16,276,934
전월 이월액		50,826,065	차월 이월액		55,726,836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6년 3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68,000
				기타급여	0
				소계	1,968,000
	소계	55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기타수입	월드뷰판매비	2,500,000		편집비	300,000
				디자인비	1,056,000
				인쇄비	2,538,580
	소계	2,500,000		소계	4,054,58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경상비	복리후생비	149,610
	미디어장학등록	0		퇴직연금	146,240
				회계용역비	110,000
	소계	0		회의비	9,300
미디어아카데미				소모품비	0
				식비	0
	소계	0		소계	415,150
미디어아카데미			기타	세금	176,570
				기타	7,000
	소계	0		소계	183,570
	당월 수입액	3,050,00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강사료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일반등록	0		미디어비품구입비	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식비	0
	소계	0		미디어행사준비	0
미디어아카데미				미디어기타	0
	소계	0		소계	0
당월 수입액		3,050,000	당월 지출액		6,621,300
전월 이월액		18,084,259	차월 이월액		14,512,959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No. (2016년 3월 31일 마감)  
Date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봉현, 김셋별, 김셋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영,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원근, 생명의강, 성관수, 영음사, 옥광천, 유성욱, 윤혜경, 이동환, 장재수, 정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조은주,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대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대웅, 공승건,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미정, 김방민, 김상욱, 김성은, 김성찬, 김승택, 김영윤, 김은경, 김정명, 김정심, 김재우, 김태영, 김향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근, 박승룡, 박천규, 박현빈, 배도환, 범경철, 손세웅,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호욱, 신기현,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영홍, 이은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이호진, 임소연, 임형준, 임효숙, 장현일, 전광화, 전정진, 전종국, 정봉현, 정한궁,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희정, 한동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성욱, 김재우, 방선기, 엄기윤, 이경우, 이남철, 이세호, 이은수, 이지은, 전영식, 정찬주, 진영규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가월현, 강동진, 강민창, 강승모, 강연정, 강원석, 강은정, 강은주, 강혜영, 고길현, 고선옥, 고연경, 고용재, 고재호, 곽은이,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경화, 김고은,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동찬,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법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봉수, 김상범, 김성경,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광, 김세연, 김세중, 김소라, 김승호, 김아람, 김아름, 김양호, 김영규, 김영숙,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민,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주영, 김준희, 김준홍, 김지민, 김지민,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호, 김판인, 김 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섭, 김홍제,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노아름, 라영환, 류은정,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모상근, 문제환, 박강국,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복배, 박상호, 박성인, 박승호, 박시운, 박용성, 박원근, 박유관,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원,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지현, 박지현, 박진규, 박창우, 박해일, 박현경, 박형준, 박희준, 배성진, 배세원, 배아름, 배인고, 배지연, 배효진, 백경은, 백은석, 백현준, 변희자, 부천평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서광원, 소종화, 손영규, 손하은, 손현택, 송종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찬웅,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희영, 심명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혁, 안용준, 양성진,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오경옥, 오성호, 오지순, 우종학, 우현기, 유건호, 유경상, 유기남,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선덕,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익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경수, 윤병식, 윤미선,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경연, 이경직, 이계섭, 이권철, 이규현, 이기섭, 이기훈, 이길규, 이길형, 이덕영, 이덕영,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근, 이상무, 이상수, 이상찬, 이상환, 이 선, 이선복, 이성미, 이성수, 이성일, 이수연, 이승엽, 이시영, 이연규, 이연경, 이연의, 이요한, 이윤홍, 이원배, 이원제,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일, 이정현, 이종국, 이종철,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지연, 이지훈, 이진영, 이정길, 이종원, 이해리, 이행로, 이형진,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민, 임동진, 임미림, 임상범, 임수연, 임우진, 임일철, 임재광, 임준섭, 임준택, 장경근, 장동진, 장성호, 장슬기, 장승재, 장승화, 장욱국, 장용훈,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영수, 전장원, 전중화, 전찬악, 정경식, 정동섭,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재현, 정정숙, 정진우, 정현규,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백형, 조성은, 조성호, 조승희, 조용배, 조용현,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하람, 조현우,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세진, 최승호, 최영수, 최윤영, 최준빈, 최진우, 최한민, 최현식, 최현정, 추진연, 대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현진, 한미영, 한인관, 한혜실, 한희수, 허기영, 허 연, 허현영, 허 현, 현승진, 현하나, 홍구화, 홍대하, 홍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석, 홍종민,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성신, 황세환, 황의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정상석, 정원길, 최동원 **1만7천5백** 이소호 **2만** 강대훈, 강용란, 김수홍, 김용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배성민, 빛과소금교회, 석지원, 우시정, 유경숙, 이건, 이기서, 이명희, 이인아, 이종철, 임지연, 조창근, 최혜경, 한진영, 한화진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문석윤, 문준호, 박상진, 박선현, 박영주, 서성록, 송태준, 오익석, 오한나, 우병훈, 이근호, 이수형, 이예진,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조무성, 최용준, 추태하, 함부영, 황정진 **4만** 김은정 **4만2천** 샘물종교대학교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성민, 김시호, 김의원, 김 향, 박문식, 서진희, 양성만, 윤석찬, 정희화, 조성대, 최현일, 한윤식, 현은주 **7만** 최태연 **8만** 권경자 **10만** 김태환, 박상은, 손봉호, 손영욱, 송인규, 신국원, 신정윤, 윤원철, 전광식 **12만** 김인섭, 이상웅, 조용호 **30만** 김승욱 **36만** 이흥구 **100만** 권성윤

계 10,744,970원

##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10만** 강남교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천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새언약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언약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제자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기쁨병원 **50만** 사랑의교회 **100만** 엘비전 **130만** 주님의심자교회

계 5,750,000원

## 광고후원

삼성전자, I&S법무법인, 홍성사, DCTY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WORLDVIEW NEWS

## 모임 | 월드뷰리더(Reader) 공고

함께 모여 <월드뷰>를 읽는 리더Reader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만 읽기 아쉬웠던 분들, 혹은 나누고 싶었지만 나눌 이가 없던 분들 함께 모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4월호 표지인물이었던 “존 낙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이신 권태경 교수의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혁자, 존 낙스”를 통해 삶 속에 진정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준비도 없어도 됩니다. 그저 열린 마음으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 등으로 신청하시고 그냥 오세요. 사당역 와우카페, 6월 3일입니다.

- **일시** 2016. 6. 2(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와우카페 (2,4호선 사당역 인근)
- **토크** 하나님의 나팔수 존 낙스를 만나다  
\_권태경 (총신대 교수)
- **문의**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모임 |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공고

젊은 신진학자들을 위한 자리, 기독교대학원생 모임이 있습니다. 5월 28일 전주, 학술대회에서 함께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 **일시** 2016. 5. 28(토)
- **장소** 전주대학교 예술관, 스타센터
- **카카오톡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문의** 02-754-8004

## 학술대회 | 2016년 춘계학술대회

돌아오는 봄,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학자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학문에 관심있는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 **일시** 2016.5.28.(토)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전주대학교 예술관, 스타센터
- **발표분과** 경제/경영, 교육, 문화예술, 법학, 철학, 역사, 상담심리, 사회복지, 의료보건, 융합, 기독교세계관 등

※ 대학원생 논문발표는 오전에 진행되며, 발표논문 중 우수한 논문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상금과 상장을 수여합니다.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호영 간사)

## 전주지역 세미나 | 세계관, 믿음대로 살기

전주에서 세계관 강좌를 실시합니다. 누구든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세계관, 믿음대로 살기
- **일시** 2016.5.27.(금) 저녁 7시 30분~10시
- **장소** 전주 동인교회
- **강사** 1. 기독교세계관 신국원(총신대 교수)  
2. 기독교세계관, 문화 속 이미지에 말걸다  
\_추태화(안양대 교수)
- **문의** 카카오톡 ID :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02-754-8004 (담당 : 신호영 간사)

**실행위원 회의 | 2016년 1차 실행위원회의**

세계관동역회 2016년 1차 실행위원회의를 실시합니다. 임원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6.5.27.(금) 저녁 6시
- **대상** 세계관 동역회 실행위원 및 학회 임원
- **문의** 02-754-8004 (담당 : 신호영 간사)

**세미나 |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강남교회 세계관학교가 개강합니다. 1,2강은 오픈강좌로 세계관동역회 이사장이신 손봉호 교수님이십니다.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간 세계관 세미나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관동역회 홈페이지나 강남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강좌 일시** 2016.5.10, 17(화) 저녁 7시  
(이후 진행되는 강좌는 별도로 강남교회 홈페이지에  
서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 **주제** 손봉호 교수와 함께 하는 세계관 여행
- **장소** 강남교회(동작구 만양로76)
- **문의** 02-814-7606

(담당 : 홍광수 목사/내선124)

\*자세한 사항은 강남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knpc.or.kr)

**5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2	
3	
4	
5	
6	사무국 임시 공휴일
7	
8	
9	
10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오픈강좌
11	
12	
13	
14	
15	
16	
17	강남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오픈강좌
18	
19	
20	
21	국민일보 월드뷰 와이드면 공동발행
22	
23	
24	
25	
26	
27	실행위원회의   전주시역 세계관 세미나
28	2016년 춘계학술대회 (전주대학교)
29	
30	
31	월드뷰 6월호 발행



## 전쟁준비

북한 정권이 남한 국민의 전쟁준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첩을 남파했다.  
몇 달 동안 남쪽 사회를 염탐한 간첩은 북한 정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남조선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전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차도에는 ‘총알’ 택시가 돌아다니고 인도에는 ‘대포’집이 준비해 있으며,

식당에서는 ‘부대’찌개를 팔고 술꾼들은 ‘폭탄’주를 마십니다.

운동경기 팀은 ‘작전’준비에 바쁘고, 회사마다 ‘전략’회의를 합니다.

단체사진을 찍을 때는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전투!’ (파이팅) 하고 외치고,

돈이 부족하면 ‘실탄’이 떨어졌다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광분해 있는 나라와 싸우다가는 큰 코 다치겠지요.”

# SAMSUNG

물에서도 마음껏.  
걱정 없이 마음껏.

♥ 1.5M 깊이에서 30분 방수  
IP68 방수방진

♥7



\*IP68: 수심 1.5m, 30분 이내의 일시적 침수에 대해 방수 가능

Galaxy S7 edge | S7



201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 기독교 학문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전주대학교 예술관, 스타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2016.5.28(토) 오전 10시~오후 6시



기조강연

기독교학문과 정책개발 \_장헌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기독교학문과 사회운동 \_김병연 (서울대 교수)  
기독교학문과 교회 봉사\_황영철 (성의교회 목사)

아름다운 전주에서 만나요!

## 전주지역 기독교세계관 세미나

일 시 5/27(금) 저녁 7시 30분~10시  
장 소 전주동인교회 (전주시 덕진구 건현왕궁로 94-49)  
세미나 기독교세계관 \_신국원(총신대 교수)  
기독교세계관, 문화 속 이미지에 말걸다\_추태화(안양대 교수)  
대 상 누구나 오세요!  
문 의 사무국 02-754-8004 / 카카오톡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